

#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고등교육 비전과 발전방향



이 장 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 이장무

대한기계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국 기계학회 펠로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제 24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 대학의 세계경쟁력과 국가기여도는 국가와 사회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과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육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위협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낮은 국제경쟁력', '재정 부족 및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자율권 확보 미흡',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충원 증대' 등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경쟁력의 획기적 강화와 우리 대학을 세계 속의 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정책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인 「고등교육 비전 415」를 발표하였으며, 차기정부가 이를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 1% 수준으로 열악한 대학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대학 운영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여야 한다. 대학 운영 자율권의 확대는 이미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경쟁력 강화전략의 핵심과제이며, 자율권의 확대를 통하여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사전규제방식을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에 대한 개정논의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석학 500명 초빙과 외국 대학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해외 인턴십 10만 명, 해외 봉사활동단 10만 명 파견 등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및 장학금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재정의 확충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므로,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대학들도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소임과 사명에 부합하기 위하여 대학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함양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